차문화치료를 통한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행동변화

김 인 숙
부산여자대학 차문화복지과 교수

본 연구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인 차문화가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도모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차문화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차문화치료프로그램이 정서행동장애 아동에게 미치는 정서 및 행동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K장애인교육복지연구원의 만 5세에서 만 12세의 아동 중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한 5명을 대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과정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차문화치료프로그램이 가능한 B대학 다도관에서 총 12회의 차문화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차문화치료효과의 검증을 위하여 부적응 행동 빈도 기록카드를 작성하였다. 정확한 빈도를 기록하고 대상자들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본 연구자 외에 사회복지사 2명, 다도교사 3명이 관찰기록카드를 작성하였다.

차문화치료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적응 행동빈도카드와 회기별 관찰 기록지를 근거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아동들이 변화된 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아동들은 프로그램 초기에 산만함, 불안,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면을 보였다. 중기로 갈수록 산만함 정도가 줄었으며 가끔 웃거나 주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변화가 일어나고 많이 안정되고 밝아진 모습이었다. 후기로 접어들면서 아동들은 어머니가 없어도 찾지 않게 되었고, 차문화치료시 차분해졌으며 특히 웃는 모습이 많아졌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사회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초기에 아동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따라서 상호작용도 일어나지 않았다. 중기가 되어 갈수록, 방석을 가지고 오면서 주위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 선생님에게도 관심을 보이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친구의 신체나 옷, 소지품 등을 만지는 행동은 계속 지속되었다. 프로그램 후기에는 아동들이 옆 친구들과 간단한 대화를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연구자의 질문에도 대답을 하고 특히 다른 친구의 차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배려의 모습도 나타났다.

셋째, 신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 찻잔잡기와 걷기에서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던 아동들이 중기로 접어들면서 어색하나마 찻잔잡기에 노력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 걷는 것과 두 손 모으기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후기에는 아동들이 찻잔을 상대에게 건네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으며, 바르게 앉기와 차반 들고 걷기도 향상되었다.

넷째, 교육적 변화를 살펴보면, 아동들은 프로그램 초기에 차문화에 관심은 적었으나 차를 마실 때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찻잔을 잡아서 마시는 행동을 보였다. 프로그램 중기에 접어들면서 차잎, 차씨, 차꽃에 관한 그림과 실물뿐만 아니라 다기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프로그램 후기에는 다기의 이름과 차문화치료 프로그램 자체를 즐거워하였다.